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해외건설에 미치는 영향

(‘22.3.11,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 ~ 목 차 ~

### I. 갈등 개요

### II. 해외건설에 미치는 영향

### III. 결론 및 시사점

## I.

## 갈등 개요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갈등의 배경
  -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정책과 NATO의 동진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
    - 우크라이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 가입 추진을 2019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국가적 목표로 채택
    - 러시아는 이를 안보 위협이자 주변국들에 대한 예전 소련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저해가 된다고 인식
    -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주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
  - 유럽 에너지 공급 주도권에 대한 강대국간 갈등
    - 러시아가 자국 에너지에 대한 유럽의 높은 의존도를 유지하고 Nord Stream 2(노르트 스트림-2) 파이프라인<sup>1)</sup>을 개통하기 위해 압박
    -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노르트 스트림-2 개통으로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것을 우려
- 사태 현황 요약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장기화 가능성
    - 우크라이나가 수도 키이우(키예프)를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있으나, 러시아의 군사공격은 지속되고 있음
    - 3차례의 회담과 양국 외교장관 협상에도 휴전 논의가 본격화되지 못한 상황이며, 임시 휴전 지역(인도주의 통로)을 통한 민간인 피난은 이어지고 있음
  - 미국, EU 등 서방 주요 국가들은 러시아에 강한 제재 부과
    - 무역 제재: 미국이 통제하는 기술을 포함한 상품의 수출 제재(FDPR)
    - 금융 제재: 러시아 은행 7곳에 대한 국제금융결제망(SWIFT) 차단<sup>2)</sup>,

1) 노르트 스트림-1에 이어서 발트해를 통해 러시아와 독일이 직접 연결된 두 번째 가스 파이프라인으로, 독일과 유럽집행위원회가 아직 개통 승인을 하지 않음

2) 3월13일부터 실시. Rossiya, VEB, PSB, VTB, Otkritie, Sovcom, Novikom 등 7곳 대상이며, 에너지 거래 관련 주요 은행인 Sberbank와 Gazprombank는 제외됨

- 러시아에 신규 투자 금지, 러시아 주요 기업 및 개인의 자산 동결 및 금융 거래 차단, 국채 제재 등
- 에너지 제재: 미국 러시아산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 중단, EU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량 감축 계획 검토, 영국 연내 러시아산 원유 수입 단계적 중단 계획, 독일 노르트 스트림-2 사업 중단
- 기타: 영공 폐쇄,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인 러시아 사업 철수 등
- 러시아, 보복성 조치로 우리나라, 미국, EU 회원국들을 포함한 48개 비우호국 명단 발표, 원자재 수출 금지 발표

## II.

## 해외건설에 미치는 영향

-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중단 또는 장기 지연 가능성
  - 현재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건설사들의 현장 인력은 모두 철수하여 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나 러시아 공사 현장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과 떨어져있으므로 전쟁 추이를 지켜보며 공사 진행 중
  - 그러나 서방국가들의 제재가 강해짐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의 러시아 내 활동에 제약이 심화될 수 있음
  - 송금 중단 조치, 러시아행 물류 이송 제한 등으로 러시아 내 건설 활동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가 격화되는 양상에 따라 러시아 관련 사업이 일체 일시 중단되어야 할 수도 있음
  - 이에 건설사들은 불가항력에 의한 사업 중단 통보, 피해보상 청구 등에 대비한 문서화 작업 필요
  - 신규 수주 활동은 차후 러시아 제재가 완화될 때를 대비하여 발주처와의 소통을 지속하며 네트워크를 유지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전이 악화되거나 우크라이나 국경 밖으로 확산될 경우 인근 국가들에서의 건설 활동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음
- 실제로 전쟁이 계속되면서 CIS국가들의 화폐가치도 하락하고 있어

해당국가 내 프로젝트들의 환차손 위험이 커지고 있으므로 계약통화 변경 및 기자금의 현지조달비율을 높이고, 신규 프로젝트는 달러, 유로 등의 기축통화를 활용한 다중통화계약을 추진

- 또한 전쟁의 영향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들은 국제 정세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발주 규모를 축소하거나 지연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

#### ◦ 러시아 금융 제재로 인한 사업 차질

##### -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 시스템에서 러시아 차단

- SWIFT 배제 대상 은행을 통한 국제결제는 사실상 불가능해짐
- 제재 대상이 아닌 은행과는 원칙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상황이나, 제재 범위가 확대될 시 러시아와의 모든 결제 경로가 차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 경우 사업 중단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사태 장기화 시 철수를 고려해야 할 수 있음
- 또한 제재대상과의 거래가 아님에도 금융기관들이 러시아와의 거래를 자발적으로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글로벌 중개은행이 심사를 지연·거부하여 송금이 제한되는 등 업무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므로 러시아와의 거래 관계는 당분간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

##### - 러시아 기업(개인) 제재대상자(SDN,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지정

- 미국이 지정한 SDN에 오른 러시아 기업(개인)과 우회 방법을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할 시 2차 제재(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 금지 등)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미 재무부 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의 SDN 목록 확인 필요

##### - 러시아 정부의 자본 유출 억제 조치

- 현지 한국법인은 한국 내 본인계좌로의 외화송금 불가(현지법인의 국내본사로의 송금은 가능)
- 서방의 금융제재와 러시아 정부 자체 제한 조치가 결합하여 루블화

가치는 연초 대비 30% 이상 하락

- 이에 건설사들의 매출 반영 지연 및 루블화 프로젝트의 경우 막대한 환차손으로 인한 재무제표 손실 발생 예상
- 제재 조치가 수시로 바뀔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이슈(기성금 수취 등)에 대비해 국토부·해외건설협회와 협력하여 대책 마련 강구 필요

#### ◦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인한 공사 지연 가능

- 러시아로 향하는 선박의 운항 중단, 시베리아횡단철도 일부 노선의 운행 중단 및 확대 예상, 우크라이나 오데사항 지역 교전 발생 위험으로 인한 입출항 통제 등으로 유럽지역의 물류 차질 문제가 커지고 있음
- 선박들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경유지에 멈춰 있으면서 연쇄 작용을 일으켜 유럽을 넘어서 글로벌 물류 정체가 심화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건설 자재와 장비의 수입 비중이 높은 해외 프로젝트의 경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와 먼 곳에 위치하더라도 글로벌 물류대란으로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를 제때 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건설사들은 자재와 장비의 현지 공급처 확보 또는 장거리 해상 운송이 필요하지 않은 공급처 모색을 통해 프로젝트 차질 방지 필요

####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가 상승 부담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세계 주요 국가들의 러시아를 향한 제재 강도가 강해지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 심화
- 특히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발전 비용의 증가로 시멘트, 철강, 구리, 알루미늄 등을 사용하는 건설 자재의 가격이 지난해 대비 20%에서 최대 50% 오름
- 서방국가들의 대러시아 SWIFT 제재로 대금 수취가 어려워진 일부 러시아 기업들이 원자재 수출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의 원자재 수출 금지에 따라 더 큰 파장이 예상됨
- 또한 서방국의 기존 SWIFT 제재에서는 에너지와 관련된 러시아 주요

은행이 제외되었으나, 러시아의 공격이 지속됨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러시아 원유, 가스 등의 에너지 수입의 중단(감축)을 발표함에 따라 에너지 가격은 상승폭을 더욱 확대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울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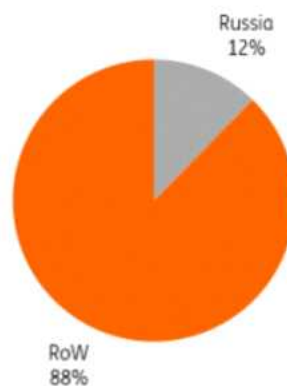
- 이에 따라 기존에 러시아에서 수입을 한 건설자재의 공급처 다변화가 요구되며, 필요 시 정부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다른 국가로부터 긴급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여러 주체 간 긴밀한 협력 필요
- 이번 사태로 에너지, 곡물 등 여러 부문의 상품가격이 폭등하면서 전체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건설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전자재 외 모든 비용의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기자재와 공사대금이 상승하여 입을 수 있는 손실에 대하여 건설사들은 발주처와 공사 지연에 대한 법적 대비책 마련 필요

◦ **고유가 상태 지속 시 산유국들의 신규 발주 증가 전망 대두**

- 러시아는 사우디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원유 수출국으로, 세계 원유의 12%를 공급하고 있음

- 세계 원유 수출 규모 중 러시아의 비중(2020년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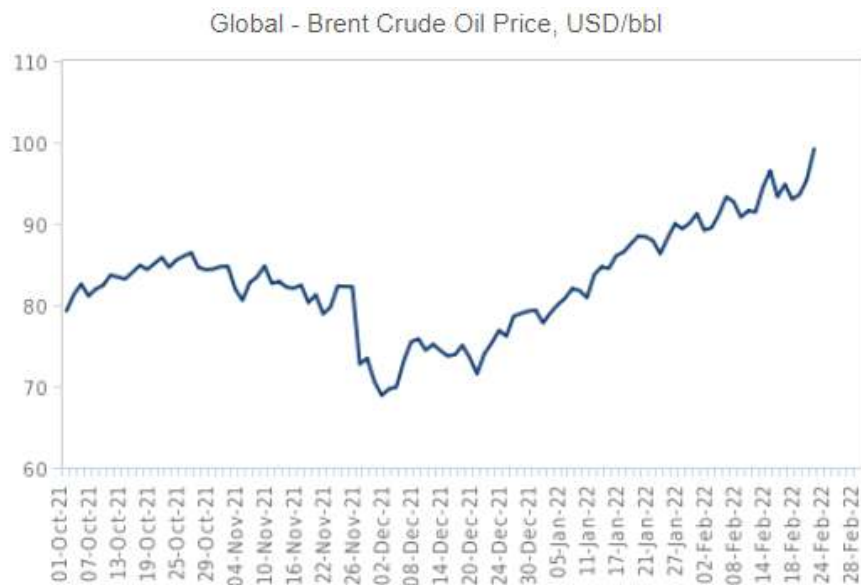
Russian share in global crude oil exports (%)



\* 출처: ING (BP Statistical Review 2021)

- 이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세계적인 원유 공급 불안정 우려가 커져 원유가격은 폭등 후 고유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미국과 EU가 러시아산 석유 수출 제재 방안을 모색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3월 7일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139달러, 미 서부텍사스 중질유(WTI)는 130달러를 돌파
- OPEC+ 증산 기대가 커짐에 따라 유가는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으나 여전히 100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 금융시장 및 에너지 전문가들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에서 최대 200달러(Barclays)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
- 러시아 외 다른 OPEC+ 국가들이 추가 증산을 실제로 이행하지 않고 러시아가 자체적으로 원유 수출을 금지할 시 이러한 전망이 현실화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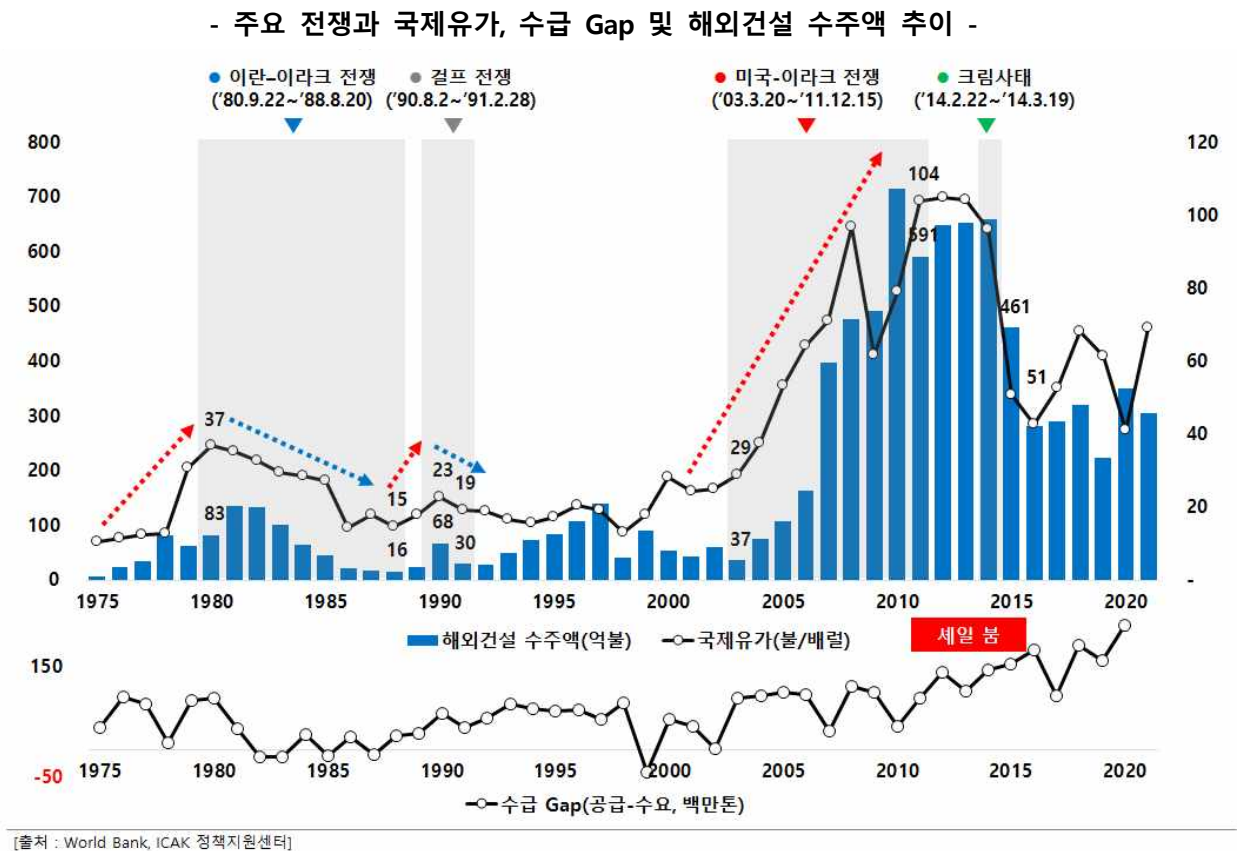
- 최근 브렌트유 가격 추이 -



\* 출처: Fitch Solutions (Bloomberg)

- 이러한 고유가 상태의 지속으로 중동지역 등의 산유국들은 재정 상태가 호전되어 신규 프로젝트 발주 또는 코로나19로 지연되었던 프로젝트를 재개하여 해외건설 수주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음

- 한편으로는 고유가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어 산유국의 발주 규모가 곧바로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 필요
- 과거 중동 3대 전쟁 및 크림사태 전후의 해외건설 수주액과 유가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유가와 수주액 간 뚜렷한 상관관계는 찾을 수 없었음



- (이란-이라크 전쟁) 전쟁시기 평균 유가는 전쟁 전 대비 20% 상승했으나, 평균 수주액은 5% 감소했음. 그리고 전쟁 후에는 유가, 수주액 각각 23%, 34% 감소함
- (걸프 전쟁) 전쟁시기 평균 유가는 전쟁 전 대비 36% 상승했으며, 평균 수주액은 144% 증가했음. 그리고 전쟁 후에는 유가, 수주액 각각 15%, 19% 감소함
- (미국-이라크 전쟁) 전쟁시기 평균 유가는 전쟁 전 대비 169% 상승



했으며, 평균 수주액은 548% 증가했음. 그리고 전쟁 후에는 유가, 수주액 각각 58%, 91% 증가함

- (크림사태) 전쟁시기 평균 유가는 전쟁 전 대비 8% 하락했으며, 평균 수주액은 1% 증가했음. 그리고 전쟁 후에는 유가, 수주액 각각 51%, 44% 증가함

- 주요 전쟁 전후 국제유가 및 해외건설 수주액 분석 -

● 이란-이라크 전쟁('80.9.22~'88.8.20)

구분	전쟁 전 ( '78~'79 )	전쟁 시기 ( '80~'88 )	전쟁 후 ( '89~'90 )
평균 유가 (불/배럴)	22	26	20
유가 변동률 (%)	-	20	-23
평균 수주액 (억불)	72	69	46
수주액 변동률 (%)	-	-5	-34

● 걸프 전쟁('90.8.2~'91.2.28)

구분	전쟁 전 ( '88~'89 )	전쟁 시기 ( '90~'91 )	전쟁 후 ( '92~'93 )
평균 유가 (불/배럴)	16	21	18
유가 변동률 (%)	-	36	-15
평균 수주액 (억불)	20	49	40
수주액 변동률 (%)	-	144	-19

● 미국-이라크 전쟁('03.3.20~'11.12.15)

구분	전쟁 전 ( '01~'02 )	전쟁 시기 ( '03~'11 )	전쟁 후 ( '12~'13 )
평균 유가 (불/배럴)	25	66	105
유가 변동률 (%)	-	169	58
평균 수주액 (억불)	52	340	650
수주액 변동률 (%)	-	548	91

● 크림사태('14.2.22~'14.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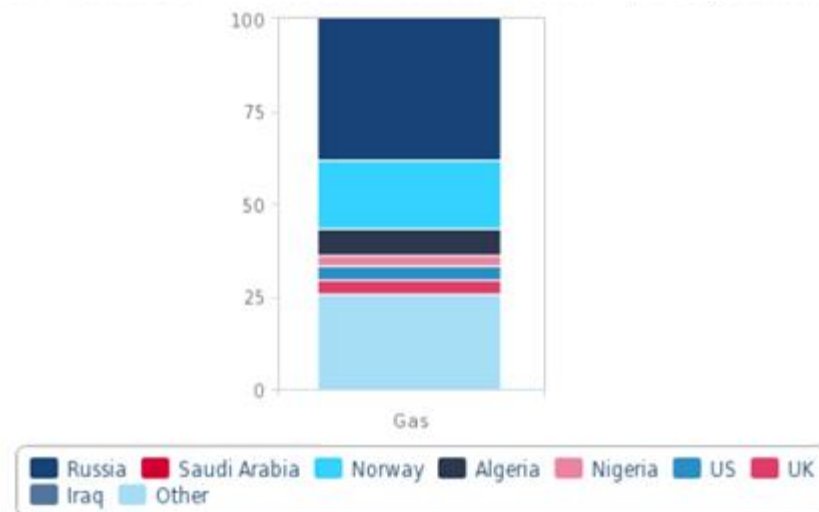
구분	전쟁 전 ( '12~'13 )	전쟁 시기 ( '14 )	전쟁 후 ( '15~'16 )
평균 유가 (불/배럴)	105	96	47
유가 변동률 (%)	-	-8	-51
평균 수주액 (억불)	650	660	372
수주액 변동률 (%)	-	1	-44

[출처 : World Bank, ICAK 정책지원센터]

- 크림사태를 제외하고는 전쟁 발발과 함께 유가가 급등하여 일정기간 동안 전쟁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수주액의 변화에는 유가 외에도 발주 국가의 GDP, 세계 경제 사이클, 경제성장률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할 수 있으므로 유가와 수주액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결론 짓기는 어려움
- 결론적으로, 고유가 상태의 지속 여부와 심화되는 인플레이션이 세계 경제 성장에 끼칠 영향이 산유국의 발주 규모에 복합적인 작용을 할 것이므로 추이를 지켜봐야 함

- 유럽의 신재생에너지 발전플랜트 증축 및 신규 건설 검토 증대 예상
  - 유럽이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약 40%는 러시아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에너지 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상황

- EU에서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생산국 분포 -



\* 출처: Fitch Solutions (Eurostat)

- 그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정 우려가 지속되면서 유럽국가들이 에너지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자체적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음
- 실제로 EU집행위원회는 연내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량을 3분의 2만큼 감축하고 2030년까지 러시아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본 계획에는 풍력과 태양열 프로젝트를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더욱이 EU집행위원회가 EU Taxonomy(녹색분류체계)에 LNG와 원자력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출하여 EU의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LNG, 원자력 등을 활용한 여러 발전 프로젝트가 더 적극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 장기적으로 유럽 내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발전 프로젝트의 수주 기회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기업들은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 발전 프로젝트 계획 추이를 살피고, 국가 지도부간 회담 시 PPP사업 등의 수주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관련자와의

지속적인 협력이 요구됨

- 단, 러시아의 경기침체 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그 파급효과로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 전망이 현재 불확실한 상태이므로 신규 프로젝트의 발주 규모와 시기는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움

#### ◦ 전후 복구 사업 진행

- 전쟁의 규모와 기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전후 우크라이나 내 인프라 및 건물들의 크고 작은 재건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전기 발전, 난방, 배수로, 교통 등의 기반시설부터 주요 공공건물, 주택 등의 복구를 위한 사업이 미국, EU 등 주요 국가들과 MDB의 지원을 기반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임
- 전후 건설 프로젝트는 긴급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서방국가들 및 MDB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신뢰도 유지에 힘을 쓰고 사업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신속한 현지 소식 파악 및 프로젝트 선제 진입을 위한 노력 필요

### III.

### 결론 및 시사점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심화되는 갈등 속에서도 미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는 물리적인 개입 없이 경제 제재를 활용한 외교적 해결 방법을 견지할 것으로 보임
- 교전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휴전을 위한 협상 또한 병행되고 있어 사태의 진행향방과 향후 프로젝트 수주환경의 전망을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러시아가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는 등의 예상치 못한 돌발전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업계는 공식적인 종전(휴전)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 필요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및 근처 지역에 진출해 있는 건설사들은 교전의 확산 및 인근 국가로의 피해 확대 여부에 주의
  - 우리 기업들은 진행 중인 사업이 당장 우크라이나와 떨어져 있을지라도 발주처, 공급업체, 협력업체 등 관련자들과 프로젝트가 긴급 중단될 경우에 대한 사전조치 및 선제대응 방침을 준비할 것
-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 범위를 넓힐수록 더 강도 높은 제재를 실행할 것이라고 공언한 만큼, 건설사들은 서방국가들의 대러 제재 조치의 변동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함
- 각국 정부의 제재 발표에 따른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은 정부 관계자 및 해외건설협회 러-우 사태 긴급상황반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긴밀한 협조를 할 것을 권장
- 결국,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단기전으로 끝날 경우에는 해외건설 수행 및 수주활동이 다소 위축되는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나, 중장기전으로 이어질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장기화되어 해외건설 수주 및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전망됨
- (긍정적 요인) 고유가 상황의 지속으로 중동 산유국들의 재정 상태가 호전되고 유럽 내 에너지 자립 움직임이 강화될수록 신규 프로젝트 발주 또는 연기되었던 프로젝트의 발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 (부정적 요인) 인플레이션 가속화와 금융시장 충격으로 비롯된 세계 경제성장 둔화 및 물류 정체 심화로 신규 및 진행 중인 사업의 추진이 중단되는 리스크가 현실화될 우려 존재
  - 전 세계적으로 인건비, 기자재 등 조달 비용이 급상승하면서 해외 현장 원가상승으로 수익성 악화 예상